

‘난해한 조사선’ 사대부의 유학 기반한 이해로 ‘융성’

<34> 송대(宋代) 사대부의 배불(排佛)과 귀불(歸佛)(2)

송초(宋初) 유가에 경도된 사대부들의 ‘배불운동’은 설승(契嵩) 스님의 ‘유불융합’과 ‘삼교일치’의 사상과 다양한 호법활동으로 중단됐다. 이후, 설승 스님의 ‘삼교일치’ 사상은 승가와 사대부 양쪽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양송의 불교는 당대(唐代) 전성기를 보였던 제종파들이 점차로 ‘선종(禪宗)’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남종선(南宗禪)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이 대표적인 불교라고 하겠다. 사실상 설승 스님과 동시대에 같은 운문종 스님인 대각회현(大覺懷璉) 또한 ‘삼교일치’를 제창했다. 불인요원(佛印了元) 선사 역시 출가하기 전에 “오경(五經)의 대의(大義)를 통달”했으며, “유가의 서적 가운데 읽지 않은 것이 없었고”, 특히 왕안석(王安石)과 교류하면서 “도가의 관(觀)을 쓰고, 유가의 생활을 하며(履), 불가의 가사(袈裟)를 입고서, 삼가(三家)를 화회(和會)해 일가(一家)를 이뤘다. 도솔타천(兜率陀天)의 길을 잊고서, 쌍림(雙林)에 오르지 않아 용화(龍華)를 기다리노라”라는 시를 남겼다<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불교에서 제창된 ‘삼교융합’ ‘삼교일치’는 불교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 유·도 양가의 사상을 포섭하자는 의도이지, 삼교가 ‘진리’를 ‘공유’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이사겸(李士謙) 거사의 유명한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별[五星]이다’라는 말과 같이 ‘삼교일치’의 주장에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전제돼 있었다. 그러나 송대의 ‘삼교일치’는 그러한 최후의 벽까지도 넘어선 ‘양보(?)’의 모습이 느껴진다. 이는 송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불교가 끊임없이 ‘우월함’만을 강조했다면, 황권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제군주제에서 아마도 그 생존조차도 보장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더욱이 당시에 불교의 주류는 바로 ‘외연(外延)’이 극대화된 ‘조사선(祖師禪)’이었기에 이러한 ‘양보’가 가능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보’를 전제로 한 ‘삼교일치’의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철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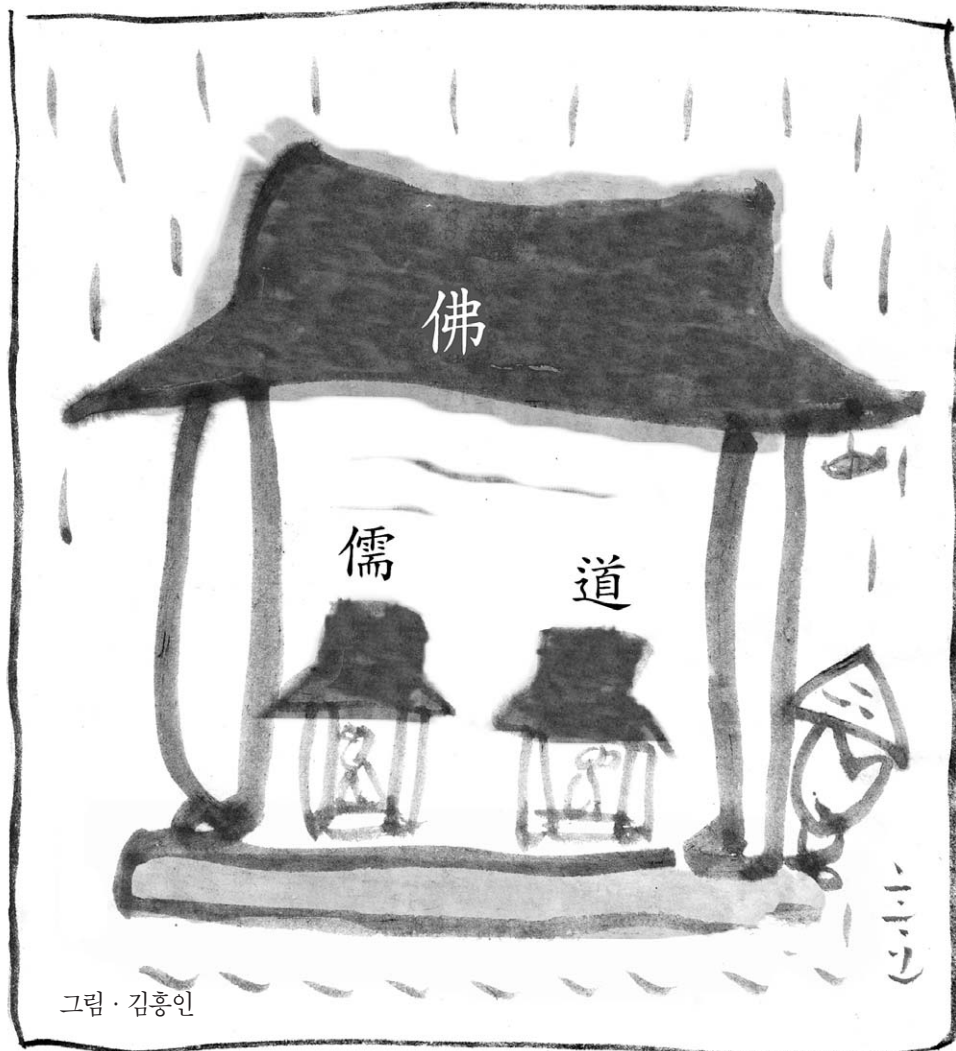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사의 유명한 제자로서 임제선법을 계승했는데, 거사는 원린 선사를 참양하고서 언하에 크게 깨닫고, “팔각의 맛을 판은 허공 속을 달리니, 금빛 털 사자를 개라 부른다. 몸을 뒤집어 북두성에 감추려거든, 마땅히 남극성 뒤에다 합장하게나”라는 계송을 지었다. 이후 거사는 선림에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됐다. 각법해홍(覺範慧洪) 선사는 <임간록(林間錄)>에서 “양대(兩代)는 그 변해(變遷)가 뛰어나 불조(佛祖)가 전하지 못한 종지(宗旨)를 능히 통달한다. 지금 산림의 남자들이 오히려 머리 숙여 그를 따르며 선도(禪道)와 불법(佛法)을 구하니, 우습도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양역 거사는 특히 문장에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이유, 왕서(王穉) 거사들과 함께 도원(道源) 스님이 찬술한 <경덕전등록>의 문장을 윤색했고, <서문>을 찬술해 총림(叢林)과 사대부 사이에 널리 유통시켰다.

이준욱(李遵勗; 字는 公武, 988~1038) 거사는 노주(潞州) 상당(上黨; 현 山西省 长治)사람이다. 벼슬은 좌룡무장군(左龍武將軍), 부마도위(駙馬都尉)에 이르렀다. 본래 양역 거사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거사는 먼저 곡은온종(谷隱縉) 선사를 참양했는데, 온종 선사 역시 수산성림 선사의 제자이다. 거사는 온종 선사에게 ‘출가사(出家事)’를 물었고, 선사는 ‘최월공문경산공안(崔越公問徑山公案)’으로 답했다. 이 공안은 바로 당대(唐代) 재상 화환(崔沔) 거사가 경산 선사에게 “제가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출가는 대장부의 일인데, 어찌 장상(將相)이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답이다. 이외에 다양한 문답을 통해 이준욱 거사는 대오했으며,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릇으로 늘 높여야 하리니, 착수하는 마음에서 결판내야 하리라. 곧바로 무상보리(無上菩提)로 나아가려거든, 일체 사물에 상관하지 말라”는 계송을 남겼다(<오동회원> 권12). 이후 거사는 온종 선사를 몇 년간 참문해 선법을 심화시켰다. 천성(天聖) 4년, 거사는 자신의 저택에 법좌를 설치해 온종 선사를 청해 법회를 열었으며, 항상 여러 선사와 담론을 즐겼다. 거사는 또한 <천성광명록(天聖靈鑑錄)> 30권을 찬술했는데, 이는 <경덕전등록>을 바탕으로 해 선종 인물들의 기연(機緣) 등을 확충한 것이다.

송대 사대부 거사들은 대부분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선의 선리(禪理)를 섭수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승가에서 먼저 ‘삼교일치’를 제창해 그들과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에 기인했다고 평가된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불교의 독자적인 성격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교의 존속을 보장받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불교, 특히 조사선의 심성론(心性論)은 자연스럽게 유가의 ‘이학(理學)’에 흡수되어 그 사상을 풍부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송대 거사불교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 김진무 (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양송 불교 종파들 ‘선종’으로 통합되는 양상 보여

唐代에 비해 승가가 먼저 ‘삼교일치’ 주장해 ‘주목’

운외기담(雲外紀談) 권하). 또한 임제종(臨濟宗)의 원옥근(圓悟克勤)과 제자인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 역시 ‘삼교일치’를 제창했다. 대혜 선사는 ‘삼교의 성인들이 설하는 법은 권선계악(勸善戒惡)이 아님이 없으며,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며, “삼교의 성인들은 오직 가르침을 세운 것만 다를 뿐이고, 그 도(道)는 함께 돌아와 일치한다. 이는 만고(萬古)에 바뀔 수 없는 뜻이다(대혜보각선사어록 권24)”라고 논했다.

이렇게 송대에서는 승가에서 적극적으로 ‘삼교일치’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당대(唐代)로부터 출현한 것이지만, 송대에서 승가의 ‘삼교일치’의 주장은 당시의 정치상황이 고려된 감이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종교에서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 서도 ‘양립’이 불가능하다. ‘진리’라는 것은 ‘공극적인 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서로 다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만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국불교가 원래 초기로부터 불·유·도의 삼교융합의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불교만이 지닌 ‘진리’는 결코

유학을 바탕으로 한 사대부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송초에 보였던 ‘배불운동’이 무엇 때문에 중지됐는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다. 또한 이러한 점 때문에 ‘이학(理學)’에 불교의 이론들이 깊게 들어가 이른바 ‘표유내석(表儒內釋)’, 즉 겉대기는 유학이지만 안의 내용은 불교라는 말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송대 사대부들 중심으로 하는 거사불교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내재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대부 계층은 철저하게 과거를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모두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능력과 성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난해한 조사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때문에 거사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다.

남송의 도옹(道雍) 선사가 편집한 <총림성사(叢林盛事)>(전2권)에는 당시 고승들의 일화와 함께 ‘참선(參禪)’과 관련된 수많은 사대부 거사들의 인명이 보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거사를 소개한다.

부림(富弼; 1004~1083) 거사는 하남(河南) 낙양(洛陽)사람으로 인종(仁宗) 시기에 추밀부사(樞密副使), 영종(永宗) 시기에는 배추밀사(樞密使) 등의 고관을 역임했고, 정국공(鄭國公)으로 봉해졌으며, 송대에 뛰어난 재상으로 유명하다. 본래 거사는 ‘배불운동’을 제창하다가 설승 스님의 글을 읽고서 불교에 호의를 가졌다. 팽제청의 <거사선> 권21에 게재된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청원공(淸獻公) 조변(趙抃)이 보낸 ‘부귀가 이미 극에 이르고, 도덕이 매우 높는데, 어찌 여려의 일대사(一大事)인연(緣)에 뜻을 두지 못하는가?’라는 편지를 받고서 참선에 뜻을 두고서 주야로 정진했다. 거사가 진호주(鎮豪州)를 역임하던 시기에 영주(潁州) 화엄원(華嚴院) 수옹(修翬) 선사의 명성을 듣고서 선사를 참양했다. 마침 선사는 법좌에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던 차에 거사가 들어오자 한 번 바라봄이 마치 코끼리 왕[象王]이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이 보였고, 그에 거사의 마음이 움직여 바로 제자의 예를 올렸다. 선사는 거사를 보고 “상공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부림은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자 거사의 등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바로 대오했다고 한다. 후에 거사는 수옹 선사의 스승인 원조종본(圓照宗本) 선사에게

“한번 수옹 선사를 뵈고서 깨달아 깊이 들어가 스승의 마음을 전해 얻은 인연이 되었네. 등남쪽의 속이는 말에 강안이 멀어졌지만, 눈앞에 신령스러운 빛과 묘음(妙音)이 드러나네”라는 계송을 보냈다(<오동회원(五燈會元)> 권16). 이후 거사는 스스로 ‘남악 선사 문하의 방은 거사, 백장 선사 문하의 배후 거사’를 표방하면서 운문선종의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속전등록> 권19에 ‘수옹선사법사(修翬禪師法嗣)’로서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다.

양역(陽德; 字는 大年, 974~1020) 거사는 건주(建州; 지금의 福建省 建甌)사람이다. 진종(眞宗)시기에 한림(翰林)의 학사(學士)가 됐고, 천희(天禧)2년(1018)에 배공부시랑(俸工部侍郎)을 역임했다. <승사(宋史)> 권305에 거사의 전기와 실려 있는데, 거사 역시 처음에는 불교에 비판적이었으나 이유(李維) 거사의 권유로 불교를 접하게 됐고, 후에는 “불전(佛典)과 선관(禪觀)에 깊이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 대종상부(大中祥符) 7년(1014), 거사는 지어주(汝州)를 역임하던 시기에 광혜원린(廣慧元璉) 선사를 참양했다. 원린 선사는 수산성림(首山省念) 선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무명종단 운영과 정통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입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人 一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평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조,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관인증서

본 인증서 발급받은 종관자는 본 조계종 소속 사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으며, 본 조계종 소속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종관자는 본 조계종 소속 사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찰인증서

본 인증서 발급받은 사찰은 본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본 조계종 소속 사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으며, 본 조계종 소속 사찰이 아닌 사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릉 인일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향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인원	대상
2009년 5월 23일 - 5월 29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일사 담마선원 (향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크스님의 명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5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5월 29일 오전 12시
- 참가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 복장, 방한용품,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을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염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더욱 심해이 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이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긴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펜클럽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천하변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 X 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뒤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네요.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의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 015-01-415953 최성욱